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엄불선' <16> 팔



관불삼매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수불의 몸은 100천 만의 야마천의 열부단 금색과 같다. 부처님 몸의 크기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유순이며,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아름답게 휘어 감아져 다섯 봉우리 수미산과 같다. 부처님의 눈은 네 개의 큰 바다와 같은데 청색과 백색이 분명하다.

백호상을 보면 8만4천의 상호가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무량수불을 보는 자는 곧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볼 것이다. 무량한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변관일체색신상(遍觀一切色身相)이라 하고 제관이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짓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만약 다른 관을 지으면 사관(邪觀)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광명을 솟아내는데 수미산과 같다. 저 무량수불의 원광(圓光)은 100억 삼천대천세계와 같다. 원광 가운데는 100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있다. 하나하나 화신불 가운데 역시 헤아릴 수 없는 화신의 보살들이 모시고 있다. 무량수불은 8만4천의 모습(相)이 있다. 하나하나 모습 가운데

진신관(眞身觀)이란 무엇인가? 법신은 모습이 없어 증생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나, 그 덕상(德相)은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體)를 바탕으로 경계(界)를 관(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마음모아 무량수불 관하면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 볼 것

데 각기 8만4천의 훌륭한 호(好)가 있다. 호 가운데 다시 8만4천의 광명이 있어, 시방세계 열불 증생을 두루 비추어 섭취하고 버리지 않는다.

관상염불에서 진신관은 무량한 상호, 무량한 덕상, 무량한 광명인 보신의 경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심화하여 산란한 마음을 쉬고 법을 받아드려 마음과 경계가 일치되면, 밝은 거울과 같이 무심하고 무량한 광명으로 충만한 심적 상태를 체험하는데 이것을 관불삼매라고 부릅니다. 이 관불삼매로서 아미타불의 진신인 진실상을 보고 무생법신을 얻으면, 정각을 성취합니다.

그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은 따로 다할 수가 없다. 다만 마땅히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볼 뿐이다. 이러한 경계를 보는 자는 곧 시방의 일체 부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관불삼매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지으면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할 이라고 이름 할 것이다. 부처님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나 무연(無緣)의 자비로써 모든 증생을 섭수하신다. 이 관을 지으면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서 모든 부처님 앞에서 무생인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면 자연히 동체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증생이 부처요, 한 생명인을 깨달아 보살의 광대한 원행을 구현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가 역설하는 엄불선이요, 수행의 완성인 일심광명입니다. 법인 '아미타'와 자신이 하나 되는 일심광명을 성취하면 종교마저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마음을 모아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하여. 무량수불을 관하는 자는 하나의 상호로부터 들어가되, 단지 미간의 백호를 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라. 미간의

■ 양산 정토원 원장

“육신 굴리는 법신이 나 임을 보라”

정릉 보림선원, 주말 철야참선 현장



서울 정릉 보림선원 재가불자들이 12월18일 선원에서 열린 철야참선에서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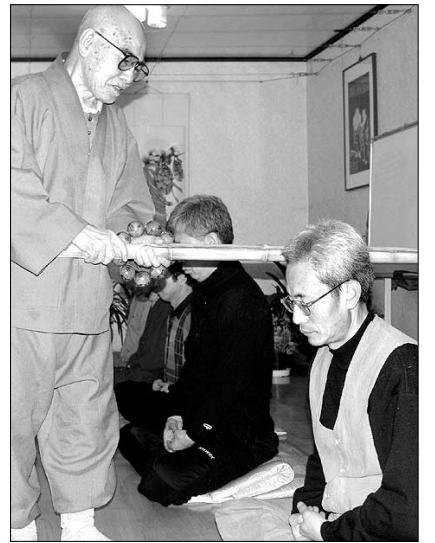
죽비소리가 침묵을 깬다. 2시간 좌선 끝에 10분간의 포행, 선방을 돈다. 두 손을 배 밑에 포개 대고, 굳은 어깨를 주스러 본다. 하지만 화두는 놓지 않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높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리고 다시 좌복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12월 18일 자정 서울 정릉 보림선원(선원장 묵산, 20여 재가 선객들이 '나를 깨닫는' 철야참선정진에 여념이 없다. 10년 이상의 구참 선객들은 화두 참구에 몰두하느라 꿈쩍도 하지 않지만, 신참자들은 화두는커녕 저런 다리 바쿠기도 바쁘다.

재가자 1천여명 거쳐가

묵산 스님은 철야참선 정진에 앞서 화두를 하나 던졌다. '부처에게 속지 말아. 종노릇 할 생각 말고, 부처와 조사를 두들겨 패. 그러려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지.'

30년 넘게 주말 철야 참선정진이 열리고 있는 도심 속의 보림선원. 이곳은 '거사풍(居士風)'의 설법과 좌선법을 지도했던 백봉 김기추 거사의 도반 묵산 스님과 제자들이 '이 몸을 쓰고 있는 무상법신을 보고 듣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의미의 '새말귀' 화두를 공부하고



경책하고 있는 보림선원장 묵산 스님.

묵산스님 지도...3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철야참선

'무상법신은 허공으로서의 나' 새말귀 화두로 정진

있는 재가불자 참선도량이다. 그간 이 선원을 거쳐 간 재가자들만 1천여 명이 넘고, 재가불교 운동의 동량도 키워냈다. 불교법조인회장 전창열 변호사를 비롯해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교수), 대불연 총동문회 명예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춘천지검 김진태 강릉지청장 등이 이곳에서 참선공부를 했다.

매주 부천에서 3시간 넘게 이곳으로 출근(?)한다는 문대웅(52·문공씨)은 "아침에 일어나면 법신을 잘 굴리자. 점심때에는 법신을 잘 굴린다. 저녁에는 법신을 잘 굴렸다"를 항상 점검한다"며 "주말 철야 참선정진은 새말귀 화두를 통해 법신이 육신을 잘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기 수행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주5일 근무제로 철야참선 큰 호응

보림선원의 이 같은 주말 철야참선정진은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선원이자 재가 수행단체의 기존 철야참선과 함께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러한 '토요일 밤의 참선열기'는 바쁜 일과로 인해 수행의 고삐를 잡기 힘든 직장인 등의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 듯하다. 불자들은 철야 참선이나 1080배, 3000배, 108회참정진 등을 통해 1주일간 쉼이 못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한 주를 활기차게 열고 있다.

을 보림선원을 비롯해 서울 화계사, 부산 해운정사, 대전 화림사 등이 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부산 해운정사는 10여 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주지 스님의 지도 하에 법문 및 참선, 1080배 등을 하고 있다. 1997년 개원한 화림사 오동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님의 지도가 법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간 특별정진주간을 정해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다.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기도 기간 중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 불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에 달한다.

매달 한번씩 정기 철야정진을 하는 사찰은 더욱 많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양평 범양정사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33배 철야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Table with 3 columns: Location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전라), Temple Name,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Title: '제5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Conten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기간 및 특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4년 12월 29일까지', '개강일시: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Advertisement for '간(肝)이' (Liver) health supplement. Title: '간(肝)이'. Content: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려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향이려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가기까지 6~8~9이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이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초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Advertisement for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Maga-mok). Title: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Content: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방이를 쥘이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들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품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경계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르신들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신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직수 대진 합장'